

김조규 시의 철도 공간과 시어의 매개성

이주열(한국외대)

〈목 차〉

1. 논의의 출발과 의도
2. 철도 공간과 시어의 매개성
3. 결론

1. 논의의 출발과 의도

근대는 시대적 개념을 떠나 기계문명의 아이덴티티(identity)이자, 칸트와 베버의 말을 빌리면 변증법적 역동성을 지닌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근대를 거치는 동안 각국의 경제발전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영역을 꼽으라면 ‘철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물자를 실어 나르는데 그 어떤 것보다 유용했던 철도는 근대의 한계를 직시하고 탈근대론 등 대타적 지표로서의 담론이 무성한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는 교통수단이면서 경제적·문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세계 인류의 공동체적 삶이 요구됨에 따라 대한민국도 철도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한반도 종단철도 운영을 시작으로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유럽과의 연결을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철도를 오래전부터 시인들은 창작의 소재거리로

취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905년 한반도에 처음 철도가 개통되자 1908년 최남선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경부철도노래』를 지은 이래 김기림·박팔양·김광근·정지용·백석·이용악 등이 철도 공간을 제재나 주제로 삼아 시를 산출해 냈다. 소설 분야에서도 이광수와 염상섭을 비롯해 많은 작가들이 철도의 미학적 서사를 구사해 냈다. 이와 관련한 논의 또한 간간이 있어 왔다. 철도의 문학적 서사와 서정을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정재정¹⁾과 박천홍²⁾, 철도인들의 상을 고구한 김옥례³⁾, 철도의 문학적 의미를 환기하고자 한 장정수⁴⁾와 허만옥⁵⁾ 등이 대표적이다. 허나 이들은 철도와 문학과의 관계를 단선적이고 단순한 논리 및 사회학 영역에서의 지엽적 논구에 그쳐 있어 새로운 시선으로서의 문학적 지평을 열어주는 주도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⁶⁾

필자는 이러한 선행 업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는 계속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우리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철도 공간과 연관된 작품들에 주목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조규(金朝奎)⁷⁾ 문학의 텍

- 1) 정재정, 『20세기 초 한국 문학인의 철도 인식과 근대문명의 수용 태도』, 『인문과학』 제7집,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2.
- 2) 박천홍,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산치림, 2003.
- 3) 김옥례, 『문학작품에 나타난 철도, 철도종사원의 이미지 연구』, 『논문집』 제17집, 한국철도대학, 2002.12.
- 4) 장정수, 『20세기 기행가사의 창작 배경과 작품 세계: 1945년 이전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47집, 민족어문학회, 2003.4.
- 5) 허만옥, 『1910년대 도시성 소설 연구: 근대성 문화기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7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8.
- 6) 이에 대한 논의는 이주열, 『경부철도노래에 나타난 긍정의식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35집, 우리어문학회, 2009.9를 참조할 수 있다.
- 7) 1914년 평안남도 덕천군 태극면에서 목사의 7남 5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26년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 수학하는 도중 광주학생운동(1929년)이 일어났다. 시위에 적극적인 참여로 체포되어 평양감옥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창작활동은 1931년 8월 『조선일보』에 「그리는 마음」과, 같은 해 10월 잡지 『동광』에 「검은 구름이 모일 때」를 발표하면서 시작했다. 1932년 평양 숭실전문학교에 진학을 하였지만, 매년 노동절을 기하여 평양경찰서에 예비검속을 당했다. 졸업 후 함경북도 보신학교 교사를 했으며 카프 경향의 시를 썼다. 이후 만주로 건너가 당시 박팔양 시인이 국장으로 있던 『만선일보』 기자가 되었다. 해방이 되자 평양 『조선신문』의 편집 일을 했으며, 평양예술문화협회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일원이 되었다. 한국전쟁 때 종군작가로서 인민군을 노래한 시들을 여러 편 발표했다. 「이 사람들 속에서」, 「달도 없는 어두운 밤」, 「여기 한 사람을 묻는다」 등이 당시 씌어진 것들이다. 전후(戰後) 주요 작품으로 통일과 반미를 읊은 「아침 독보회」(1954년), 「어머니 환갑날에」(1957년), 「미 제국주의를 단죄한다」(1974년)와 노동 계급의 신념을 노래한 「수령께서 우리 공장에 오시다」

스트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시인의 작품들 중 모티프로 작용한다고 할 정도로 철도와 관련된 시가 상당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조규 시인과 관련한 연구들은 일반론적인, 즉 거시적인 시대 의식 혹은 미시적인 시인의 시정신을 타진하는 데 그쳐 있다. 말하자면 시인의 작품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이 외재적 비평 방식에 준한 시인의 사회의식 내지 시대정신을 거론하고 있다.⁸⁾ 그렇지 않은 성과물이 있긴 하다. 김영규의 『김조규 시 연구』⁹⁾가 그것인데 시어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시인의 시적 변모 과정을 살핀 작업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개에서 명사·대명사·형용사 등 언어의 빈도수를 통계 처리하는 데 기울어져 있어 문예학적 기술보다는 통계학적 기술의 느낌을 주고 있다.

본고는 이들과 차별성을 떨 요량과 더불어 꾸준히 철도 공간과 연관된 작품들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의도에서 철도와 관련된 텍스트들로만 선정하여 고찰하되, 내재적 비평 방식에 준한 텍스트 미학의 충위를 점검하는 데 무게를 둔다. 이를 위해 러시아 형식주의자 B. 토마셰프스키가 내세운 ‘동적 모티프’ 및 ‘정적 모티프’ 이론¹⁰⁾을 참조 삼았다. 김조규 시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철도 공간이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으로 응축되어 있는 까닭이다. 문학 속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한 요소가 모티프(motif)¹¹⁾라고 할 때, 소설¹²⁾에서뿐만 아니라 한 시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시어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1959년)가 있다. 또 농촌의 실태를 묘사한 『포전 오락회』(1955년)라는 시가 있다. 작품집으로 『동방』(1947년), 『이 사람들 속에서』(1951년), 『김조규 시선집』(1960년)이 있다. 1990년 12월 3일 76세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우규, 『전파를 타고온 북한시인 김조규의 사망』, 『문학사상』, 1992.7 및 김태규, 『나의 형님 김조규』, 『김조규 시집』,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참조.

8) 권영진, 『김조규의 시세계』, 『숭실어문』 제9집, 숭실대학교숭실어문연구회, 1992.5; 김태진, 『김광균 시와 김조규 시의 비교 연구』, 보고사, 1996; 김정훈, 『일제강점기 제만 조선인 이주 문학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5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2; 김경훈, 『김조규의 해방 전 시 작품 연구』, 『비평문학』 제23호, 한국비평문학회, 2006.8; 김진희, 『1934-40년대 해외 기행시의 인식과 구조-임화와 김조규의 일본, 만주기행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제33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조상준, 『김광균과 김조규 시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등이 있다.

9) 김영규, 『김조규 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0.6.

10) Boris Tomashevsky, Thematics, Russian Formalism: Four Essays, L.T.Lemon & M.J.Reis, Nebraska Unive Press, 1965.

11) 에이브람즈, 최상규 옮김, 『문학용어사전』, 예림기획, 1997, 224면.

12) 실제 필자는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무정과 만세전의 철도 서사』, 『어문론총』 제5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6)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모티프의 이론을 적용시켜도 무리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 글에서 모티프를 어떤 사건의 유형이나 기법을 가리키는 의미보다는 작품 속에 반복되는 중요한 어구나 고정된 묘사 또는 이미지를 가리키는¹³⁾ 의미에 방점을 찍고, 모티프의 논리로서가 아니라 시의 일반적 특징으로서의 ‘동적’·‘정적’인 시어의 매개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류의 근대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해온 철도를 대상 삼아 시인은 어떤 언어적 구성으로 표명하였는지, 또 그 언어적 구성으로서의 시적 이미지를 어떻게 구조화 하였는지를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진단해 보려는 것이다.

2. 철도 공간과 시어의 매개성

김조규의 시작품들에서 철도 공간은 대체로 1930~40년대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배경으로는 ‘기차’·‘역’·‘열차’·‘정차장’·‘역마차’·‘역전’·‘차실’·‘대합실’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텍스트 내의 핵심적인 언어이거나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주요한 시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기차’와 ‘대합실’이다. 이 둘은 사용 빈도와 관계없이 기존 논의에서도 빼놓지 않고 비중 있게 다루어진 대상¹⁴⁾이기에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본고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 ‘기차’와 ‘대합실’, 이 두 공간을 매개하는 시적 언어들의 표상체를 조명해 보면 크게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으로 나뉜다.

1) 기차의 공간과 동적·정적인 시어의 매개

기차 공간이 주를 이루는 텍스트는 1930년대 발표된 것과 1940년대 발표된 것이 있다. 창작 연대와 관계없이 기차 공간에서의 의미 구조가 동적인지 정적인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작품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3) 에이브람즈, 앞의 책, 같은 면 참조.

14) 김영규, 앞의 논문, 168-169면 참조.

별관 우에는/갈잎도 없다. 高粱도 없다. 아무도 없다.

鐘樓 너머로 하늘이 무너져/黃昏은 싸늘하단다./바람이 외롭단다.

停車場에선 汽笛이 울었는데/나는 어테로 가야 하노?

호오 車는 떠났어도 좋으니/驛馬車야 나를 停車場으로 실어다 다고

바람이 유달리 찬 이 저녁/머언 포폴라 길을 馬車 위에 홀로.

나는 외롭지 않으려다./조금도 외롭지 않으려다.

- 『延吉驛 가는 길』 전문¹⁵⁾

시인이 일본에 의해 강탈된 조국을 등지고 이국땅 낯선 곳에서 부정적 사유에 기인한 체험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시로서, 시적 화자의 암울한 심리적 흐름을 읽게 해준다. 김조규 시인의 “절망적 자의식”¹⁶⁾이 다른 창작품들에서뿐만 아니라 철도 공간이 나타나 있는 작품에서도 고스란히 표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쓰인 시적 언어들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이 시가 “진한 슬픔”¹⁷⁾만이 충만해 있지는 않다. 선형적이고 각인된 시대적 의미를 일단 젓혀두고 각 연에 쓰인 언어 형태만을 집약해서 보게 되면 망향의식이 내재된 비탄조의 어조들과 변별되는 어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1연에서 3연까지 슬어들의 표층, 즉 “아무도 없다”(1연), “바람이 외

15) 애초 이 작품을 필두로 모든 인용 대상은 2002년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화연구소가 펴낸 『김조규시전집』으로부터 추려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본의 시어를 그대로 옮긴 것과 현대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쓴 것이 적지 않아 표기법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왕이면 김조규 시문학의 시사적 위치를 다지기 위한 방편으로 그보다 앞서 출간된 시집인 송실어문학회 편, 『김조규 시집』,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6을 텍스트 인용의 대상으로 결정했다(이하 『김조규 시집』으로만 명기함). 물론 여기에서도 표기법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대두천역에서』 시어 중 “높일”은 현대맞춤법으로는 ‘높힐’이나 ‘높일’ 그대로 옮겨 실고 있다. 반면 원본의 “부현데”는 현대맞춤법을 적용해 “뽀현데”로 고쳐 적고 있다.

16) 권영진, 『김조규의 시 세계』, 송실어문학회 편, 『김조규 시집』,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6, 175면.

17) 김정훈, 앞의 논문, 363면.

롭단다”(2연), “어데로 가야 하노?”(3연)는 시인 자신이 서 있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의식 발화의 자장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4연부터 6연까지 술어들의 표층, 즉 “정차장으로 실어다 다고”(4연), “머언 포플라 길을 마차 위에 홀로”(5연), “조금도 외롭지 않으려다”(6연)는 시적 화자가 상황의 문제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발화의 자장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연부터 6연까지 술어들의 공통점은 긍정적 성질을 띤 단정적 어투이다. 단정적 어투는 동적인 의미소가 함의된 어조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뚜렷이 보증해 주는 곳이 마지막 6연이다. “~않으려다”의 반복적이고 단정적인 어투는 시적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서, 삶의 긍정성을 확보한 적극적인 변화 모색의 강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정적 어투로서의 변화 모색의 강구는 동적 행위의 직접적인 계기이자 텍스트 전체를 동적 이미지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전체적인 시적 분위기가 아닌 각 연에 쓰인 단정적 어투들을 개별로 눈여겨보되, 1연부터 6연까지 연속적으로 읽어나갈 때 뚜렷하게 동적인 이미지의 구조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들 개별적 형태는 동적인 계열관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연	2연	3연	4연	5연	6연
아무도 없다	외롭다	어데로 가야 하노?	정차장으로 실어다 다고	마차 위에 홀로	조금도 외롭지 않으려다
상황적 문제의식의 발화			변화 모색의 발화		
동적 행위의 계기성					

그러므로 작품을 통해 시적 화자가 “고향에서 추방당해 낯선 곳에 왔음을

절감하”¹⁸⁾는 것만으로 보거나 도피 행위로서의 나약한 지식인으로만 비친다고 할 수 없다. 단언적 어투는 확고한 내면적 의지로부터 발현되는 바, 그것은 세계에 대한 부정성을 띠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보다 긍정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길역 가는 길』은 시적 화자의 삶에 대한 의지력이 내면적으로나마 꿈틀대고 있는 동적인 이미지가 구조화 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철도 공간의 동적인 면모가 확연히 눈에 띄는 작품을 보자.

검은 나래들이 푸루루 푸루루 서쪽산 너머로 날어간 아침/우리들의 탄 急行列車는 지금 이슬에 젖은 아침平原을 달린다

바퀴의 구르는 強烈한 音響과 깨어지는 「레일」의 창백한 憂愁/거세인 動力과 똑똑 쏟아놓는 굴뚝의 검은 呼吸.../電信柱도 달린다 山도 움죽인다 大地도 地軸을 잃었다/들들들 먼 大野와 끝으로 달리는 우리들의 역세인 行軍/소나무도 춤을 추고/언덕우엔 내어린 겨레들이 高喊치며 두팔을 벌린다

새벽을 찢으며 달리는 우리들의 行軍 앞엔/卑怯도 없다 愛隣도 感傷도 모두 죽었다/보라, 저기 平原萬里에 붉은 情熱이 太陽덩어리가 불쑥 머리를 내밀었고/悲歌의 작자...가마귀의 一群이 등성이 넘어 일제히 退却을 開始했다

田園이여 평이를 부뚜른 地心에 밝으라/工場이여 機械에 기름을 넣으라/娼婦여 깨어진 노래에 새로운 譜表를 꽃으라/太陽이 노래하는 明日의 都城을 向해/우리들을 실은 急行列車는 지금 이슬에 젖은/아침平原을 지나 北으로 달린다

— 「汽車는 지금 이슬에 젖은 아침平原을 달린다」 전문¹⁹⁾

작품은 “~밝으라”, “~넣으라”, “~꽃으라”와 같은 술어들로 인해 시적 움직임의 울림이 돋보인다. 거기에 “달린다”, “움죽인다”, “벌린다”, “개시했다” 등의 동사형 언어 구성이 보태져 동적인 이미지의 층위를 이룬다. 또한 “바퀴의 구르는”, “똑똑 쏟아놓는 굴뚝의 검은 호흡”, “소나무도 춤을 추고”, “겨레

18) 위의 논문, 같은 곳.

19) 『김조규 시집』

들이 고성치며”, “새벽을 찢으며 달리는”, “태양덩어리가 불쑥 머리를 내밀었고” 등의 시구들이 덧붙여져 동적인 철도 공간의 구축이라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汽車는 지금 이슬에 젖은 아침平原을 달린다』의 화자는 즉자적으로 식민지 현실을 한탄하거나 좌절하여 실망감을 비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소를 지닌 단언적 어투로써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시의 언어적 표상으로부터 특별히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것은 능동적 또는 적극성을 띤 시적 화자의 감정 분출 단면이다. 시적 화자가 식민지 상황을 그저 슬프게 바라보기만 하거나 도피적인 행위로서가 아닌 민족적 수난의 영역에서 이탈하여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각오로서의 탈출 모색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거침없이 앞으로 내달리는 기차의 모습에서 그것의 의미가 내재해 있다. 질주하는 기차의 이미지 자체가 침체성을 파괴하는 역동적 이미지를 띠고 있어서다. 그 어떤 정체된 상실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아닌 당당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상징적 메타포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는 일면 “생활의식에 확고한 근거를 두어야”²⁰⁾ 한다는 카프문학론과 일맥상통한다. 단지 1935년에 해체된 프로작가들은 현실을 변혁시킬 구체적인 방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다분히 계몽적인 말들만 되풀이했다²¹⁾는 비판도 없지 않는데 인용시가 이에 결맞은 내용적 충위를 지니고 있다. 실제 『汽車는 지금 이슬에 젖은 아침平原을 달린다』는 카프가 해산되기 직전의 1930년대 초에 창작된 것²²⁾으로서 시인이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카프와의 관계가 있었던 것²³⁾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

같은 기차 공간일지라도 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도 있다.

안개 짙은 밤/나는 그늘진 나의 청춘을 안고/북행열차에 실려/도망치듯 고향을 떠났노라

20) 박영희, 『개벽』, 1925.2.

21) 강진호, 『사회적 신념과 계몽주의』, 『상허학보』 제3집, 상허학회, 2000.9, 390면.

22) 『동아일보』 1934년 5월 12일자에 발표된 것으로 확인됨.

23) 김우규, 앞의 책 참조.

산 속을 기여/海岸을 달음질쳐/北關千里…

車室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한쪽 生活의 縮圖인가/행복은 문 어귀에도
없고/不幸만 짝 차 숨이 막힌다

車窓을 적시는 가을 찬 비는/울며 따라서던/어머니 눈물이나?/마지막 넘던
집 문턱/울바자에 맺혔던 밤이슬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잃었으니/어느 구석엔들 웃음이 있으리요/빈 젖을 파고
드는 애기의 울음을/어머님들 무엇으로 멈춘단 말인가/그런데 욕설로 무찌르
는 異邦말…

차마퀴 소리 요란한 걸 보니/두만강 다리를 건너는가부다/벌써 大地는 일어
/북만엔 눈발이 섰다는데/훗적삼 토스레로 이제/大陸의 칼바람을 어이 견뎌낼
것인가

오라는 글발도 없고/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밤과 밤을 거듭한/追放의 막막한
나그네길

나는 내가 내리는 이곳/북행열차는 끝닿는줄 알았는데/아,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北行列車는 더큰 不幸과 슬픔을 싣고/어텐가 자꾸 떠나고 있어라

— 「北行列車」 전문²⁴⁾

역동적이어야 할 기차, 그러나 위의 시를 구성하는 언어들 세세히 들춰 보면 그러한 역동적인 기차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적인 세계와 친연성을 갖는 침울한 색채의 언어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에 동원된 언어 ‘밤’, ‘그늘’, ‘도망’, ‘불행’, ‘눈물’, ‘밤이슬’, ‘울음’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4연의 “~눈물이나?”와 “~밤이슬이나?”의 의문형 표식과 “~웃음이 있으리요”, “~건너는가부다”, “~견뎌낼 것인가” 등 의미 전달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어구(어투)들로 인해 부정적 의미소들의 집합체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시적 화자 스

24) 『김조규 시집』

스로도 “추방의 막막한 나그네길”임을 실토할 정도로 세계에 대한 부정적 사유를 견인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움직이는 기차 안이지만, 그 움직임이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를 던져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적 화자가 철도 공간을 바라봄에 있어 부정적 시선을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슬픔을 딛고” 자꾸 어디로 떠나느냐는 식이다. 이는 당대 문예창작 경향이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나 낭만주의나 하는 등의 창작방법론으로부터 비껴나 빈궁과 고통을 달래는 사회 분위기²⁵⁾에 따른 시적 행위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역동적이지 않은 모습의 기차와 병행하여 시적 화자의 심리 역시 그와 동반한 이미지로 흐른다. 안개 짙은 밤의 북행열차에 몸을 싣고(1연) → 산 속, 해안을 지나(2연) → 차실에서의 회한에 젖는 동안(3·4·5연) → 두만강 다리를 건너고(6연) → 민족의 설움을 감싼 채(7·8연) 떠나가는 시인의 소극적 인상을 제시받을 수 있다. 기차 안 시적 화자의 수동적 태도만이 비친다고 하겠다. 즉 불온한 세계를 향해 배태된 침울한 의미소들로 배열되어 있는 까닭에 동적인 이미지보다는 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작품이다.

2) 대합실의 공간과 동적·정적인 시어의 매개

시인 김조규에 의해 대합실 공간이 시의 제재나 주제로 쓰인 것은 주로 1940년대 작품들에서다. 시인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일제의 만행을 피해 기차를 타고 한반도를 떠난 시기가 1930년대라면, 불완전한 삶을 추스르며 먼 타지(만주)의 철도 정거장에서 고향을 그리던 시기가 1940년대임을 창작시를 통해서도 인지 가능하다. ‘기차 공간’의 텍스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대합실 공간’의 텍스트 구조가 동적인지 정적인지 쉽게 분간할 수 없는 작품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고향 사투리가 듣고 싶어/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저녁 停車場으로/내 蹠蹟
이 나아오다

25)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9, 4면 참조.

에서 고향이/몇 천 몇 백리이뇨?/南行列車에 탄 길손이 부러워라/보내는
사람도 없는데 손을 들어/멀리 사라지는/푸른 신호등을 바래주노라

人生은 못자욱 어지러운/三等待合室/행복보다도 不幸으로 가득 찬/三等待
合室.

(할머니 그 늙으신 몸에/北行列車를 더 타시렵니까?)/눈물의 북쪽 만리 아하
하/쫓기우는 족속이여

쪼막발 異邦의 아가씨가/人形처럼 아장아장/문을 열고 들어선다/슬픈 石膏
像처럼 창턱에 기대여/낮선 거리의 저무는 風景을/失神한듯 내다보는 젊은이
도 있다

아, 언제 닥칠지 몰을/그 무서운 폭압의 챗찍이 내리기 전/나도 어데던지
떠나야 할것 아닌가/한마디 고별의 인사도 없이/밤차에 숨어/밤차에 홀로...

— 「三等待合室」 전문²⁶⁾

얼핏 보면 이 「삼등대합실」은 비애적인 분위기에 놓여 있다. 시적 화자의
우수 어린 마음이 적막한 대합실 공간과 맞물려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인 어휘나 어구들을 하나하나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첫 행부터 “고향 사투리가 듣고 싶어”로
시작하여 마지막 행 “밤차에 홀로”까지 어디든지 떠나고 싶어 하는 시적 화자
의 능동적인 행위가 읽힌다. 이러한 방식의 언어 구사는 이 작품에 적지 않게
나열되어 있다.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남행열차에 탄 길손”, “보내는 사
람도 없는데 손을 들어”, “인형처럼 아장아장”, “문을 열고 들어선다”, “나도
어데던지 떠나야 할것 아닌가” 등이 그것이다. 모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
미소들로서 아직 뭔가를 꿈꾸는 혹은 희망의 길을 찾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동적인 면모가 비치는 시구들이다. 표면적 분위기인 시인의 침울한 모습과 길
항관계를 형성한다고 하겠다.

이는 인용시가 구조의 평면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과 같다. 구조의 평면

26) 『김조규 시집』

성은 시적 대상에 시적 자아의 심리적인 정서를 유기적으로 암시하여 시적 상징의 단순성을 띠게 하는 것²⁷⁾인데 『三等待合室』은 그렇지 않다. 환언하면 시적 분위기와 개별적 언어로 나누어 봤을 때 시의 전체적 분위기, 즉 당대 우리 민족의 비참한 모습이 텍스트를 덮고 있기에 정적인 이미지를 전달 받을 수 있다. 반면 언어 구성의 개별성, 즉 시적 어구들을 하나하나 분절해 놓고 보면 능동적이고 적극성의 의미소가 깃든 동사형 어구들을 목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적인 이미지 구조가 위치해 있다는 것으로 단정하게 된다. 대합실 공간이 명확히 정적인 이미지로 드러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마음도 없는/산 비탈에 서 있는 외진 山間驛/하늘엔 눈발이 뿌연데/待合室
은 지친 얼굴들/가득 차 있다

우묵 패인 불/눈동자는 저마다 닳쳐올 운명에/춥처럼 떨고 있으니/貧窮의
한 배 속에서 나온 형제들이나/행복이란 손에 한번 쥐어 못 본 얼굴들이다

경상도, 평안도, 관북 사투리/제 고장 기름진 땅 누구에게 빼앗기고/이리도
멀고 먼 이역 땅/두메 막바지에 흘러왔담?

쫓기는 신세라 이제 또한/얼마나 많은 눈물/무거운 근심을/이 大陸 황무지
에 쏟을 것인가

호트러진 머리를 쓸어올릴 생각도 없이/바닥만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여인/
눈물자욱 마르지 않은 걸 보니/오는 길에 얘기를 굶어 죽인 게로구나

할머니는 천리길 걸어 아들 면회갔다/‘비적’의 어머니라 구두발에 채여/감
옥 문간에 쫓겨났다지요?/떡다 버린 벤포를 주어 먹는/애야 너는 그렇게도
배가 고프냐?

아, 이 사람들 위해/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무엇을 아끼겠느냐만/유리창

27) 김용직, 『한국현대시작품론』, 문장, 1994, 16면 참조.

은 흐리어/하늘도 흐리어……

썰매도 마차도 소방을 소리도/환영처럼 흰 눈 속으로/사라지고

고향은 강 건너 조선땅이지만/흙 한번 밟아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어둑기
전 앞 고개 넘어야겠다면서/하나, 둘/눈속에 숨어드는데

이 내몸 높일 지붕밑은 어드메뇨?/집도 없고 벗은 가고/다리는 지쳤고/뜻만
으로 헤쳐야할 운명의 험난한 길에

아, 눈이 내린다/바람은 나뭇가지에 더욱 소란타

— 『大肚川驛에서』 전문²⁸⁾

『大肚川驛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다. 긴 시임에도 쓰인 것들은 ‘외
진’, ‘산간역’, ‘지친’, ‘떨고’, ‘빈궁’, ‘이역 땅’, ‘두메’, ‘눈물’, ‘무거운’, ‘근심’, ‘황
무지’, ‘흐트러진’, ‘눈물자욱’, ‘감옥’, ‘어둑기’, ‘숨어’, ‘험난’ 등 모두 어두운 색
채의 시어들이다. 그것에 의해 아래의 표로 다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둑고 무
거운 색채의 시구들로 텍스트가 지배당하고 있다.

1연	▶ 마을도 없는 산비탈 ▶ 하늘엔 눈발이 뿌연 ▶ 대합실은 지친 얼굴들 가득
2연	▶ 우묵 패인 불 ▶ 눈동자는 저마다 닳쳐올 운명에 좇처럼 떨고 ▶ 빈궁의 한 배 속
3연	▶ 기름진 땅 누구에게 빼앗기고 ▶ 이리도 떨고 먼 이역 땅
4연	▶ 쫓기는 신세 ▶ 얼마나 많은 눈물 ▶ 무거운 근심
5연	▶ 바닥만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여인 ▶ 오는 길에 애기를 굶어 죽인
6연	▶ 비적의 어머니 ▶ 감옥 문간에 쫓겨났지요? ▶ 그렇게도 배가 고프냐?
7연	▶ 유리창은 흐리어 하늘도 흐리어

28) 『김조규 시집』

8연	▶ 소방을 소리도 환영처럼 흰 눈 속으로 사라지고
9연	▶ 강 건너 조선땅이지만 흙 한번 밟아보지도 못했다 ▶ 하나 둘 눈 속에 숨어드는데
10연	▶ 집도 없고 벗은 가고 다리는 지쳤고 ▶ 뜻만으로 헤쳐야할 운명의 험난한 길
11연	▶ 바람은 나뭇가지에 더욱 소란타

이러한 시구들로 짜인 텍스트로부터 이국땅 산간 역 대합실의 분위기를 쉽게 감지 받을 수 있는데, 당대 조선민족의 삶이 어떠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준다. 일본에 의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후 삶의 터를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의 조선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는 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인이 『大肚川驛에서』의 텍스트를 통해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시적 화자로 하여금 그 어떤 극복의 의지를 이끌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텍스트 내에 도사리고 있을, 즉 화자가 숨 막히는 타국에서 이탈하려는 능동적 또는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언어 구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시에서 그 어떤 움직임이나 역동적인 인사가 철저히하리만큼 차단되어 있다고 하겠다. 자연히 이들 연결고리로부터 구조화되는 정황은 정적이다.

특히 시적 언어들로부터 대합실을 중심으로 한 두 갈래의 이미지가 들춰진다. 하나는 ‘쫓기는 신세’의 이미지이며, 다른 하나는 ‘배굼’ 이미지이다. ‘쫓기는 신세’의 이미지는 ‘저마다 닳쳐올 운명에 떨고 있는 촛불’로, ‘배굼’ 이미지는 ‘빈궁의 한 배 속에서 나온 형제’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시 전체를 통해 전자의 이미지보다는 후자의 이미지가 더 강한 분위기로 받아들여진다. 일제강점기에 유·이민 삶의 수치보다 전망 부재의 현실로부터 빚어진 좌절감과 또 그 좌절감에 비례해서 배굼은 아픔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에 대한 저항적 태도나 분노의 심정이 응축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만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민초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문제의식으로써 증폭되지 않고 있다.²⁹⁾ 『大肚川驛에서』의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고향’도 시적 화

29) 만주 철도 정거장에서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갈망이 『大肚川驛에서』의 핵심이다. 조국 상실감의 시구, 즉 시적 화자의 강 건너가 고향인데 몸 늘힐 지붕은 어디냐고 하는 대목에서 김조규 시인의 조국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전해 받을 수 있다. 진부한 비평적 언급에 불과하지만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회귀 의식과 상통한다. 신화비평에서 고향의 원형적 이미지는 생의 근원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과거로의 회귀

자의 암울한 상황의 기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반전을 꾀하는 행위로서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시적 화자의 수동적 태도에 기인한 정적 공간의 이미지만이 도드라져 있다.

1800년대부터 대략 1940년대까지 철도는 강대국들이 편리하게 식민지를 확보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김조규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 또한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던 바, 한반도를 거점 삼아 중국에까지 침략을 뻗었던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에 철도가 이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용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조선에서든 만주에서든 철도 공간의 비애가 깔려 있다는 데 대해 이의를 달 수 없다.

다음은 「한 叉叉驛」이라는 시이다.

하필 저녁에/차가 머물 것인가?/거리는 강 건너 멀리/저녁 연기에 잠겨 희미하다

待客室은 고달픈 삶에/현기증이 난다/너도 나도 모두/지칠 대로 지친 얼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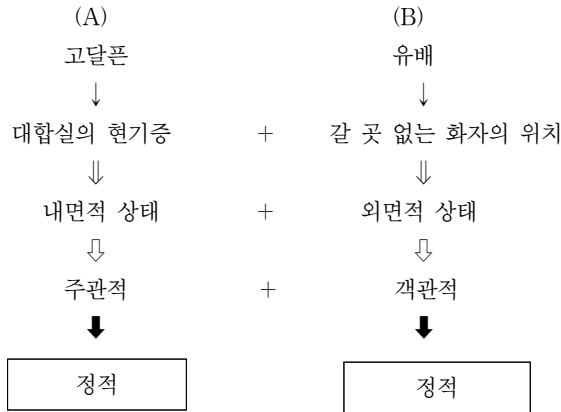
좀더 맑은 공기가 어데 없을까/문을 밀고 나서니/하늘도 납덩이처럼 내리눌러있구나

이제/한 시간 지나야/바꾸어 탈 열차는 온다는데/갈 곳 없는 流配의 길에/나의 위치를 나는/어데로 정해야 옳을고?

담배라도 피워보자/아무도 없는 곳/들판에서나 한번/고개 번쩍 들어보자
- 「한 叉叉驛에서」 전문³⁰⁾

의식을 내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디아스포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국적 이탈이나 이주 현상뿐만 아니라, 고국에 대한 기억 또는 고국을 진정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되돌아가야 할 곳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일컫는다. 물론 고국으로 되돌아가려는 의지를 포기하거나 귀향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까지 디아스포라의 용어 안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진부한 설명을 굳이 꺼내드는 이유는 텍스트에서 간과할 수 없는 디아스포라의 요소들 때문이다. Clifford James, "Diaspora," *Cultura Antbropology*, 9(3), August, 1994, pp.302-338 참조.

이 작품의 중심은 대합실이다. 역시 어두운 색채의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달픈’, ‘현기증’, ‘지친’, ‘유배’ 등이 그것이다. 이들 언어들이 짙막한 연의 연결 속에서 교묘하게 조응됨으로써 텍스트 전체가 시종 침체의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다. ‘고달픈’과 ‘유배’가 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어로서 이들의 매개 작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의 ‘고달픈’이라는 관용적 언사로부터 시인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인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자유시의 창작방식, 즉 비유와 상징의 시적 장치로 엮어진 것이 좋은 시라고 할 때 의인화 기법인 “대합실은 고달픈 삶에 / 현기증이 난다”는 좋은 시의 한 구절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인법 구사는 어디까지나 시인의 내면적 상태를 나타내는 주관적 표현에 해당한다. 반면 (B)의 ‘유배’라는 언어는 “갈 곳 없는 유배의 길에 / 나의 위치를 나는 / 어디로 정해야 옳을고?”에서 보듯이 시인의 외면적 상태, 즉 고국을 떠나 유배의 삶을 살고 있는 시적 화자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 交叉驛』은 주관적 표현과 객관적 표현이 조화롭게 구조화되어 시인의 내면적 상태와 외면적 상황이 뚜렷하게 드러난 작품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주관적 표현이든 객관적 표현이든 텍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시적 언어들은 모두 어두운 색채의 의미소들이며, 그것들로 인해 시적 화자가 세계

30) 『김조규 시집』

를 바라보는 행태 또한 그 어떤 긍정적 혹은 희망적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적인 이미지가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겠다.

인용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자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직전에 창작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시인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삶을 추스르지 못한 채 이국땅 철도 공간에서의 긍정적 감정을 쏟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적 화자 자신의 운명을 역사적 흐름에 던져버린 듯한 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시작품으로나마 간간이 동적인 면모를 비추주었던 김조규 시인도 당대 대부분의 지식인들처럼 어찌될지 모르는 조국의 앞날에 대해 괴로움을 토로하며 극복의지가 꺾인 목소리를 단언적으로 내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시인은 대합실에서 “문을 밀고 나서” 봐야 “남덩이처럼 내리눌리” 어진 ‘하늘’로 표출하고 있다. 삶의 역동성을 추동하기 힘든 연민의 대상으로 대합실을 바라보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시인을 그려볼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의 시사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시인의 상상력으로부터 발현된 언어적 변주가 어떠한 형태 및 이미지 구조로써 철도 공간과 매개되고 있는지를 궁구했다.

철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 지구적 인 근대의 행보를 실감나게 보여준 까닭에 기계문명의 대표주자라 할만하다. 서구의 근대적 문화를 동양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 부설된 조선의 철도 또한 민족적 관심을 끌며 생활의 관습과 전통적 믿음을 파괴할 만큼 당대 조선인들에게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꾀하게 한 공간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21세기 오늘날도 우리는 철도를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는다.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간인 까닭이다. 이를 토대로 많은 시인들에 의해 철도가 하나의 소재거리로 취급되어 왔다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차·대합실을 포함한 철도 공간과 연관된 창작물들에서 시인의 시대인식 및 사회의식의 흐름까지 전달 받을 수 있다. 그러한 텍스트 내

상징적 수사 구도에 대한 탐구의 욕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간 김조규 시인을 대상으로 논의된 바에 의하면 비판적인 현실인식의 작품을 생산해 냈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일본제국주의가 세계만방에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식민지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낭만주의적 상상력을 분출시킬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 일제치하 그것도 1930~40년대 전망의 불확실성을 가져온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둘러싸여 있었고, 민족 내의 정세 또한 단순한 혼란과 분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맞닥뜨려져 있었던 터다.

그러한 때 김조규 시인은 철도를 시적 제재나 주제로 삼아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에 본고는 선행 연구들에서 비껴나 있는 철도 공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으되 내재적 비평 방식에 기인한 텍스트의 미학적 층위를 점검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그 과정에서 동적(動的) / 정적(靜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질료들을 들춰낼 수 있었다. 작품에 뚜렷이 표식 되어 있는 ‘기차’와 ‘대합실’이라는 공간 분석을 통해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조규의 여타 작품들에서처럼 철도 공간이 주를 이루는 텍스트들에서도 식민지의 암울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기표로서의 언어들을 하나하나 분절하여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작품들마다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뺨으라”, “~넣으라”, “~꽃으라”거나 “바퀴의 구은는”, “뚝뚝 쏟아놓는 굴뚝의 검은 호홉”, “소나무도 춤을 추고”, “겨레들이 고성치며”, “새벽을 찢으며 달리는”, “태양덩어리가 불쑥 머리를 내밀었고” 등처럼 단언적이고 능동적 투의 언어로 매개되어 동적인 기차 공간의 이미지를 만든다. 또한 “~눈물이나?”, “~밤이슬이나?”, “~웃음이 있으리요”, “~건너는가부다”, “~전던넬 것인가” 등처럼 의문형 술어나 의미 전달의 불명확한 어투로서의 정적인 기차 공간의 이미지를 띠기도 한다.

한편 김조규 시에는 동적인 대합실과 정적인 대합실의 공간 형태 오브제들이 나타난다.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남행열차에 탄 길손”, “보내는 사람도 없는데 손을 들어”, “인형처럼 아장아장”, “문을 열고 들어선다”, “나도 어데던지 떠나야 할것 아닌가” 등이 동적인 언어의 오브제로서 능동적이거나 긍정적 혹은 적극적인 행위를 뒷받침하는 의미소들이다. 반면 “하늘엔 눈발이 뿌연데”, “우묵 패인 불”, “눈동자는 저마다 닥쳐올 운명에 촛불처럼 떨고”,

“바닥만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여인”, “애야 너는 그렇게도 배가 고프냐?”, “하나 둘 눈 속에 숨어드는데” 들은 정적인 언어의 오브제로서 수동적이거나 부정적 혹은 소극적인 의미소들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우규, 『전파를 타고온 북한시인 김조규의 사망』, 『문학사상』, 1992.7.
박영희, 『개벽』, 1925.2.
송실어문학회 편, 『김조규 시집』,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6.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화연구소 편, 『김조규시전집』, 2002.
Meyer Howard Abrams,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예림기획, 1997.

2. 논저

- 강진호, 『사회적 신념과 계몽주의』, 『상허학보』 제35집, 상허학회, 2000.9: 375-391면.
권영진, 『김조규의 시세계』, 『송실어문』 제9집, 송실대학교 송실어문연구회, 1992.5: 5-28면.
_____, 『김조규의 시 세계』, 송실어문학회 편, 『김조규 시집』,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6.
김경훈, 『김조규의 해방 전 시작품 연구』, 『비평문학』, 제23호, 한국비평문학회, 2006.8: 31-52면.
김영규, 『김조규 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0.6.
김옥례, 『문학작품에 나타난 철도, 철도종사원의 이미지 연구』, 『논문집』 제17집, 철도대학, 2002.12: 55-74면.
김용직, 『한국현대시작품론』, 문장, 1994.
김정훈,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인 이주문학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5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2: 349-382면.
김진희, 『1930-40년대 해외 기행시의 인식과 구조-임화와 김조규의 일본, 만주기행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연구』 제33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43-182면.
김태규, 『나의 형님 김조규』, 송실어문학회 편, 『김조규 시집』,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6.
김태진, 『김광균시와 김조규시의 비교 연구』, 보고서, 1996.

- 박천홍,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산치럼, 2003.
- 백 철, 『조선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9.
- 이주열, 『경부철도노래에 나타난 긍정의식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35집, 우리어문학회, 2009.9: 545-574면.
- _____, 『무정과 만세전의 철도 서사』, 『어문론총』 제5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6: 349-371면.
- 장정수, 『20세기 기행가사의 창작 배경과 작품 세계: 1945년 이전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47집, 민족어문학회, 2003.4: 415-447면.
- 정재정, 『20세기 초 한국 문학인의 철도 인식과 근대문명의 수용 태도』, 『인문과학』 제7집,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2: 163-204면.
- 조상준, 『김광균과 김조규 시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허만욱, 『1910년대 도시성 소설 연구: 근대성 문화기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7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8: 405-430면.
- Boris Tomashevsky, *Thematics, Russian Formalism: Four Essays*, L.T.Lemon & M.J.Reis, Nebraska Unive Press, 1965.
- Clifford James, "Diaspora," *Cultural Antbropology*, 9(3), August, 1994.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비유와 상징으로 엮어진 김조규의 시를 다루었다. 김조규는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자주적 독립성을 잃은 시기 민족의 당면한 위기를 시로써 표현하려고 애쓴 시인 중 한 사람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까지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에서 대부분 외재적 비평 방식, 즉 시인의 사회의식 내지 시대정신이 두드러지게 단편적·표피적으로 진술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띠는 요량과 더불어 꾸준히 철도 공간과 연관된 작품들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되, 내재적 비평 방식에 준한 텍스트 미학의 층위를 점검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 형식주의자 B. 토마셰프스키가 내세운 ‘동적 모티프’ 및 ‘정적 모티프’ 이론을 참조 삼아 시의 일반적 특징으로서의 ‘동적’·‘정적’인 시어의 매개성을 구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인류의 근대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해온 철도를 시인은 어떤 언어적 구성으로 표명하였는지, 또 그 언어적 구성으로서의 시적 이미지를 어떻게 구조화 하였는지를 진단했다. 그 과정에서 동적(動的) / 정적(靜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철도 공간의 시적 질료들을 들춰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철도의 ‘기차’·‘대합실’ 공간과 매개되고 있는 단언적 어투라든지 의미 전달의 불명확한 어조 등이 동적인 이미지 구도 또는 정적인 이미지 구도를 띠게 하는 중요한 오브제들임을 밝혀냈다.

주제어: 철도 공간, 김조규, 기차, 대합실, 동적, 정적

【Abstracts】

A Study on Railway Space and Mediated of Poetic Words of Kim Jo Kyu Poems

Lee Ju-yeoul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totype, which Kim Jo Kyu weaves a metaphor and symbolism but sought to identify aspects of the poet poetic Words and image layers of the modern machine civilization directly or indirectly connected with the railway area. According to the vague understanding that the poet's imaginative shaping contemporary atmosphere and space in a railroad motif discuss existing and noticeable difference in urine volume poetic vocabulary of the language poets such as how to configure the image, the image of the poet in any way research the one that how appears to. Japanese invasion of Joseon period many contemporary poets, but a pathological world view as wet while negative attention to the sense of loss as they did, 1930-40's, and as a metaphor of another way they resonate with rail space lice figured weaves the award and it was Kim Jo Kyu.

In connection with the poet chosen to sanctions at the railway catering, shape and artwork that can be classified as a Bomber dynamic / static image of an eye means the action of Shea it was identified several pieces.

Therefore the aesthetics of the property and the poet's poetic language center trains and waiting rooms that are clearly label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men in dynamic, static allowing each of them to medium of substance was developed under the argument relative concept.

Key words: railway space, kim Jo Kyu, trains, waiting rooms, dynamic, static

이 논문은 2015년 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